

조계종을 비롯한 종단협 소속의 5000여 스님이 1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이 대회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승려대회에는 외국인 스님들도 참석했다.



승려대회에 참가한 한 수좌스님이 간절하게 종교편향 종식을 발원하고 있다.



황희 문체부장관의 사과영상이 송출되자 봉암사 스님 등 일부가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다.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발 원 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부처님!

세간의 청정한 길 밝게 열어주시고
거룩한 공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에 참가한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을 모아 발원하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큰 가르침을 헤아리지 못하여
소유의 독선, 권력의 독선, 종교의 독선에 매몰되어 가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배타적 행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만들었음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시비와 분별로 나와 남을 구별하고
공정과 평화의 가치는 쇠락하였으며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회하고 또 참회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한국불교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천 7백 년 한국불교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로,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로 자리매김 하였건만
이를 부정하는 위정자들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지우기 위해
배척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만의 세상이고 가진 자만의 세상이듯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민족정신에 반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어둠 속을 방황할 때 부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시련 속을 헤매일 때 부처님의 고행을 보이시어
용기를 배우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로운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서원을 세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향해 이웃과 함께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모든 생명이 존귀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큰 물결이 되어
다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통문화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파사현정의 깃발 높이들고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한 범종단 승가대중은 부처님 전에 참회와 발원을 올리오니, 한량없는 자비로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2566(2022)년 1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